

로컬리더스

익산시, 유학생 8명 통역요원 위촉

익산시가 국외 기업유치 등 다양한 분야의 교류, 협력 활동을 지원하기 위해 통역지원단을 구성하고, 도내 대학에 유학중인 외국인 유학생 가운데 통역이 가능한 유학생 8명(중국어 7명, 일본어 1명)을 통역요원으로 위촉했다.

이번에 위촉한 통역요원들은 전북대학교, 원광대학교 및 우석대학교에 재학 중인 6명의 대학원생, 2명의 학부생들로써 각 대학교의 국제교류 부서가 엄선해 추천한 인재들이다. 주로 경제, 통상관련 전공자들이며 다양한 통역관련 경력을 가지고 있어 익산시의 외국 관련 행사시 고품질의 통역을 제공하는 것은 물론 지역을 널리 알리는 친선 홍보대사로서 역할을 할 것으로 기대된다.

/익산=장왕원기자

철도공사 전북본부 서정문 기관사 무사고 100만km 달성

한국철도공사 전북본부 익산기관차승무사업소 서정문 기관사가 지난 25일 제 1501열차(용산역~여수엑스포역)를 운전 중 경부선 천안~소정리역 사이(서울 기점 104km) 지점을 통과하면서 무사고 100만km를 달성했다.

서정문 기관사는 만 25세인 1986년 7월 익산기관차승무사업소에 첫발을 내딛어 1992년 11월 익산기관차승무사업소 기관사로 임용된 후 24년여간 단 한건의 사고 없이 100만km를 달렸으며, "무사고 100만km"는 지구를 25바퀴 돌고 서울~부산간을 1,250번 왕복하는 동안 단 한건의 사고도 없어야 달성이 가능한 거리이다. 서정문 기관사는 "고객을 안전하고 편안하게 모시는데 기관사의 사명"이라며, "무사고 100만km를 달성할 수 있도록 도와준 가족들과 동료들에게 진심으로 감사드린다"고 밝혔다.

/익산=장왕원기자

군산시, 4월 부터 금요일 달빛 걷기

군산시 보건소소장 전형태는 시민의 걷기 실천율을 높이기 위한 방안으로 오는 4월 1일부터 매주 금요일 7시 은파호수공원 일원에서 '우리 같이 걸어요 달빛 걷기'를 진행한다.

보건소에 따르면 군산시민의 걷기 실천율 조사결과 지난 2014년도에 27.7%로 전라북도 평균 34.2%에 비해 낮게 나타났다. 이에 보건소는 지속적인 체력증진, 질병예방, 비만감소를 위한 걷기의 생활화를 위해 달빛 걷기를 통해 시민들의 자발적인 걷기를 유도하여 걷기 실천율을 높게 할 계획이다. 자세한 내용은 군산시 보건소(460-3252, 3255, 3264)로 문의하면 된다.

/군산=문정근기자

# 군산, 민선6기 공약사업 '순조'

## 지난해말 기준 전체 107건중 41건 이행 완료·66건 정상 추진

문동신 군산시장의 민선 6기 공약사업이 순조롭게 추진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군산시는 지난 25일 시청 상황실에서 문동신 군산시장을 비롯한 전 부서 간부 공무원이 참석한 가운데 민선 6기 공약사업 보고회를 열고 이행 상황을 점검했다. 이날 보고회에서는 민선 6기 2년차 시점에서 시민들과의 공약이행을 점검하고 공약사업 추진에 있어 예상되는 문제점과 이에 대한 대책마련을 위한 논의가 이뤄졌다.

민선 6기 5대 핵심분야인 어린이 행복도시 조성 도시재생 및 균형발전 희망 주는 농·수산업 풍요로운 지역경제 함께 행복한 복지 등 5개 분야 107개 세부사업에 대한 추진사항 및 향후계획 등이 보고됐다.



군산시는 25일 시청 상황실에서 민선6기 공약사업 보고회를 열었다

군산시는 민선4기와 5기에 50만 국제관람기업도시 건설을 목표로 기업 및 대규모 투자유치를 이끌고, 근대문화화를 기반으로 한 관광인프라 구축에 나섰다. 민선6기는 어린이와 시민 모두가 행복한 사회구현과 균형발전을 통한 풍요로운 지역경제 조성 등이 시정의 핵심 방향이다.

공약사업 총 107건 중 임기 내 사업이 83건, 임기 후 장기사업이 24건으로 이 가운데 시 자체추진 85건, 중앙부서 등 타 기관 협력추진은 22건이다. 전체 사업비는 약 1조 1117억 원으로 국비 38%, 도비 5%, 시비 10%, 기타 민간자본 등이 49%이다.

지난해 말 기준 107건 공약사업 중 41건이 이행 완료됐고, 나머지 66건은 정상 추진 중인 것으로 시는 자체 분석했다. 이 가운데 28건은 50%이상의 이행률을 보이는 등 전체 공약사업

이행률이 평균 64.3%로 나타났다.

5대 핵심분야별 주요 성과는 우선 어린이 행복도시 조성을 위한 전담 부서를 신설하여 추진위원회를 구성하고 관련 조례를 제정했으며, 아동복지 제로화 안전망 구축 및 어린이 해산안전체험관 조성 등 다양한 분야에서 어린이 행복도시 조성을 위한 사업을 추진했다.

도시재생 및 균형발전을 위해 오식도동 정주여건 T/F팀 구성, 보급차리 주택사업 추진, 건축물과 자연환경 조화를 위한 그린디자인 인증제 제도정비를 완료했다.

희망주는 농·수산업 조성을 위해 농작물 재해보험 및 시설자금 지원을 확대했으며, 친환경농산물의 생산·유통·소비체계 및 1차 가공 지원체계를 구축하고, 로컬푸드 사업 활성화를 추진했다.

풍요로운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해

한국자업 군산공장 노사정협의체 구성, 기업 및 근로자를 위한 종합지원센터 설치와 고용유연 공동 해결을 위한 노사민정 사회협약체결 등 경제 분야 주요 공약사업 완료로 산단 경기활성화와 일자리 창출 지역공동체 동반성장을 위한 기틀을 마련했다.

함께 행복한 복지구현을 위해 행복한 경로당 만들기를 위한 맞춤형 프로그램 개발과 농어촌 거주 장애인 가구 주택개조사업 치매관리센터 설치·운영 등을 완료했다.

문동신 군산시장은 "공약은 시민과 함께 군산발전을 이끄는 진정한 약속이므로 사업 추진과정에서 나타난 문제점에 대한 대책마련을 철저히 준비해 시민과의 약속이행이 완료될 수 있도록 간부 공무원을 비롯한 전 직원의 적극적인 자세를 당부한다"고 말했다.

/군산=문정근기자

# 군산시 영상미디어센터 예산 반납 처지

## 문광부 공모 선정 5억 확보했으나 조성할 건물 찾지 못해

군산시가 영상미디어센터 설립 공모에 선정돼 국가예산을 지원받았으나 미디어센터를 조성할 건물을 찾지 못해 예산을 반납해야 할 처지에 놓이는 등 행정절차만 남비하고 있다.

시는 지난해 문화체육관광부의 지역 영상미디어센터 설립 공모에 응모해 완주군과 경합을 벌여 5억 원의 예산을 확보했다.

군산시와 함께 예산을 지원 받은 완주군은 현재 미디어센터 조성을 준비하고 있다.

이에 반해 군산시는 사업의 진척이 더딘 상황으로 추가예산을 확보하지

못하고 있으며 미디어센터를 조성할 건물조차 선정하지 못해 확보한 예산마저 반납할 실정을 처했다.

시는 당초 나운동(구)KBS 부지 일원에 미디어센터 건물 신축을 염두에 두고 공모를 신청했다. 하지만 여론 및 시장조정위원회에서 유휴청사 등 기존 건물에 대한 활용 방안을 제안하면서 방향을 선화했으나 현재까지 미디어센터로 활용할 건물을 찾지 못하고 있는 실정이다. 특히, 군산시는 추가 부담해야 하는 시비 20억 원 조차 확보하지 못하고 있다. 또한 고가의 방송장비 관리 등 미디어센터 운

영을 위해서는 매년 최소 4억~5억 정도가 필요한 것으로 예상됨에 따라 적자운영에 대한 우려와 함께 공모 신청 단계부터 철저한 사전심사가 이뤄져야 한다는 지적이다.

콘텐츠 관련 전문가는 "군산시가 체계적인 계획 아래 사업을 추진해야 성공확률이 높는데 불구하고 주먹구구식으로 진행하다보니 이런 일들이 발생하고 있다"면서 "예산도 부족한 데 완주군과 꼭 닮아있는지 차근차근 준비 후 다음 기회를 노려볼 수는 없었는지 의문이다"고 말했다.

/군산=문정근기자



# 군산시, 서해수호의 날 기념식·안보결의대회

군산시는 군산여성교육장에서 문동신 군산시장을 비롯해 관내 기관 단체장 등 500여명이 참석한 가운데 '제1회 서해수호의 날 기념행사 및 범시민 안보결의대회'를 지난 25일 개최했다.

올해 처음 개최된 '서해수호의 날 기념행사'는 지난 2010년 3월 26일 천안함 피격사건과 같은 해 11월 23일 연평도 포격사건으로 희생된 호국영령을 추모하고, 국가안보의 소중함을 되새기기 위해 추진했다.

기념식은 국가수호를 위한 대한민국 군인들의 활약을 선보인

동영상 상영과 헌시, 헌화 분향과 북한에 도발을 규탄하고 안보의식의 소중함을 되새기는 내용의 결의문 채택순으로 진행됐다.

문동신 군산시장은 기념사를 통해 "북한의 도발에 맞서 고귀한 생명을 바친 호국영령들의 숭고한 희생정신을 추모하고 우리 영토에 대한 수호의지를 다지는 의미 있는 자리가 되기를 기원한다"고 말했다. 한편 군산시는 매년 3월 넷째 금요일을 법정기념일인 '서해수호의 날'로 지정하고 지속적으로 기념행사가 추진할 방침이다.

/군산=문정근기자

# 군산 국가산업단지 내 셔틀버스 운행 약정 체결

고용노동부 군산지청(지청장 김정수), 군산시청(시장 문동신), 한국산업단지공단 전북지역본부(본부장 윤종인)는 지난 25일 군산시청에서 군산 국가산업단지 내 셔틀버스 운행 지원에 대한 약정을 체결했다.

이번 지원은 고용노동부가 추진중인 지역·산업맞춤형 일자리 창출 지원사업의 최종 선정결과에 따라 자치단체가 지역특성에 적합한 고용촉진, 직업능력개발, 고용환경개선사업 등을 발굴해 제안하면 고용노동부에서 공모를 통해 선정·지원하는 사업이다.

이번 약정체결에 따라 고용노동부는

군산 산업단지 내 셔틀버스 운영을 위해 군산시에 1억1100만원을 지원한다.

고용노동부 군산지청 관계자는 "봉급버스 운행으로 산업단지 내 근로자들에게 질 좋은 고용환경을 제공함과 동시에 군산지역의 구인구직 활성화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고 말했다. 약정 체결에 참여한 3개 기관 관계자들은 "향후 군산 산업지역이 명품 산업지역이 될 수 있도록 관계 기관이 더욱 긴밀히 협조해 나가겠다"고 다짐했다.

/군산=문정근기자

# 군산상의-산업인력공단 청년 취업 업무협약

군산상공회의소(회장 이현호)가 고용노동부가 주관하는 '2016 청년취업이카데미' 운영기관에 5년 연속 선정돼 한 한국산업인력공단 전북지사(지사장:이용호)와 운영기관 협약을 체결했다.

이번에 선정된 2016년 청년취업이카데미사업은 군산상공회의소와 군정대학, 서해대학의 대학졸업예정자를 대상으로 4개 과정 70여명의 교육생을 선발해 실제 산업현장에서 요구하는

맞춤형 교육과정을 거쳐 참여기업에 취업을 연계, 학교교육과 취업 현장간의 미스매치를 해소하고 취업으로 연계하는 사업으로 진행된다.

청년취업이카데미사업은 각 학교별 연수생 모집 및 사업설명회를 개최하고 1·2학기중 이카데미과정을 진행, 상공회의소가 주최하는 취업캠프, 취업박람회 참여 등을 절차를 거쳐 참여기업에 취업이 연계된다.

/군산=문정근기자

**Seeseri Clean UP**

문제는 싱크대다

Why? "씨서라"를 사용해야 하는가

- 싱크대 배수통 24시간 짜든 때와 막힘
- 스물~스물 올라오는 음식물과 불쾌한 냄새
- 오래 사용한 싱크대 배수구를 속독 하고 싶다면
- 믿을수 있는 국산, 특허 제품
- 님녀노소 누구나 손쉽게 설치, 사용 가능

# (주) 코포스

## 청결한 주방문화를 창조하는 기업

각 지역 총판 및 딜러모집 (여성에게 유리한 사업입니다.)

광고 게재기간동안 공동구매시 설치비 30%할인 행사합니다.

코포스에서는 창업을 희망하는 분들께 "새로운 형태의 창업"을 제안합니다.

홈페이지 [www.seeseri.com](http://www.seeseri.com) / [www.씨서리.com](http://www.씨서리.com)을 방문하시면

상품정보, 각종동영상, 자세한 자료, 사업의 비전 등을 보실 수 있습니다.

상담 : 이병기 010-5628-1256. [see8709@naver.com](mailto:see8709@naver.com)

"씨서라" 실제 설치!

청소액 [박스]

세척 용이하고 배수구 청소가 쉽습니다.

배수구 청소는 수시로 해야 합니다.

배수구 청소는 배수구 막힘을 예방합니다.

배수구 청소는 배수구 막힘을 예방합니다.

배수구 청소는 배수구 막힘을 예방합니다.